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 2026. 5. 18.(월) 16시

“입양동포는 한인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”...지속적인 지원 요청

-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 기간 동안 12개국 95명 입양동포 목소리 담아...
- 김경협 청장, 파주·DMZ 일정 동행...“모국은 입양동포의 든든한 버팀목” 강조

【관련 국정과제】 123. 재외국민 안전과 편익 증진 및 재외동포 지원 강화(국격에 걸맞은 수요자 맞춤형 재외동포 지원)

- 입양동포 단체 리더들이 5월 22일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「2026 세계한인 입양동포대회」 폐회식 현장에서 ‘입양동포 정책제안서’를 재외동포청에 전달했다.
 - 제안서는 전 세계 입양동포단체 리더들을 중심으로 초안을 작성하고, 12개국의 참가자 전체와 의견을 나누는 과정을 거쳐 완성됐다.
 - 입양동포와 그 자녀(후손)을 한국 역사와 글로벌 한인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보고, 입양동포 단체를 지속 가능한 공동체 기반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.
 - 세부 제안사항은 ▲거주국 내 입양동포 단체 지원과 심리지원 확대 ▲재외공관의 입양동포 지원역량 강화 ▲가족찾기·국적 회복·입양기록 접근 등을 위한 다국어 정보포털 구축 ▲한국 내 단일 연락창구와 통합 지원 체계 마련 ▲입양동포 경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▲입양동포 자녀·후손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.
- 재외동포청은 22일 이와 같은 정책 제안서 전달을 끝으로 「2026 세계한인입양동포대회」 5일간의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.
 - 앞서 전날인 21일에는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이 참가자들과 함께 경기도 파주를 방문해 엄마품동산과 DMZ 일대를 둘러봤다.

- 참가자들은 입양동포를 기리는 상징 공간인 엄마품동산에서 해외입양의 역사와 입양동포들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고, 모국과의 유대 의미를 되새겼다.
- 이어 DMZ와 도라전망대 등 접경지역을 찾아 한반도 분단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마주하며, 평화와 통일이 갖는 의미를 함께 생각했다.
- 폐회식에서는 대회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, 참가자들이 모국에서 나눈 경험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됐다.
- 김민철 재외동포청 차장은 폐회사에서 “이번 공동 정책제안서는 입양동포 사회가 직접 제시한 소중한 목소리”라며 “재외동포청은 이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, 향후 입양동포 지원정책과 사업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검토하고 소통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- 재외동포청은 이번 대회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서와 현장의 목소리를 향후 입양동포 지원정책과 관련 사업을 검토하는 데 참고하고, 관계기관 협력 과정에서도 입양동포 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.

붙임 : 행사사진 3부. 끝.

담당 부서	재외동포청 차세대동포과	책임자	과 장 김채영 (032-585-3213)
		담당자	주무관 변승우 (032-585-3216)

